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백 은 정

2018년 8월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박 정 환

백 은 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백은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8월

<국 문 초 록>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백 은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내 인문계고등학교 남, 여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6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600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33부를 제외하여, 총 56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척도로는 부모학습관여를 측정하기 위해 김연수(2007)의 어머니의 학습관여형태 척도를 재구성한 부모학습관여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단순(2006)이 재구성한 자기주도학습 능력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구성한 '한국형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유미영(2010)이 변환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Hayes의 Process Macro 3.0을 이용해 Bootstrapping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연구에서 가정한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학업정보제공 및 조언과 학습방식 존중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학습성과 압력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학습관여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져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지 않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하위요인 분석을 통하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과 자신감을 매개하여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효율적인 학습관여태도를 제시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부모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능력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5
3. 연구모형	6
II. 이론적 배경	7
1. 부모학습관여	7
2. 자기주도학습 능력	11
3. 학업적 자기효능감	15
4. 부모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능력과의 관계	18
III. 연구방법	22
1. 연구대상	22
2. 측정도구	23
3. 자료분석.....	26
IV. 연구결과 및 해석	27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27
2. 부모학습관여,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29

3.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30
4. 부모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4
V. 논의 및 결론	38
1. 논의	39
2. 결론 및 제언.....	42
참고문헌.....	44
Abstract	53
부록(설문지)	56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22
<표 2> 부모학습관여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23
<표 3> 자기주도학습능력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24
<표 4>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25
<표 5>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28
<표 6>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29
<표 7>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30
<표 8> 호기심과 탐구심에 미치는 영향	31
<표 9>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	32
<표 10> 학습내적통제에 미치는 영향.....	33
<표 11>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4
<표 12> 부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5
<표 13> 모 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6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6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등학생의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의 청소년기에 속해 있는 시기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며 한 인간으로서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각 단계를 거치며 발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적응하기 위하여 각 발달 단계에는 반드시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는데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학업은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이다. 학업은 학생들의 자아정체성의 형성, 상급학교로의 진학, 사회에서의 취업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또래와의 관계, 교사 및 부모와의 관계에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정보의 홍수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를 많이 보유한 것이 경쟁력이었다면 지금은 그 많은 양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보의 질이 달라지며, 개인의 삶의 양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학습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의 양을 판단하여 그것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삶의 전반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 교육의 범위를 평생교육으로 개념화 하였으며, 평생교육사회를 지향하는 오늘날 자기주도 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지고 있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에 대한 관심은 커졌고,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교육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도 2000년 7차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학교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7차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에 단계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국민공통기본 교과뿐 아닌 재량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높이고자 하였다(교육인적 자원부, 1997).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보다는 족집게 과외나 학원 같은 사교육에 의존하며 타인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원에 길들여진 학생들 대학전공까지 과외” (KBS뉴스, 2015)에서는 고등학교때까지 주입식 요점정리 수업을 받아오던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해 답을 찾는 대학식 수업에 어려움을 겪어 대학전공까지 과외를 받고 있으며, 청소년기에 길들여진 사교육이 대학생이 된 뒤에도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급격한 사회의 변화는 핵가족의 보편화와 맞벌이 등으로 소수의 자녀만 기르게 되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가족환경은 학생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이며 특히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대해 갖는 태도는 학생의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김연수, 2008).

부모의 양육태도나 애착관계의 양상이 영유아기 때의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학습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방법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자녀가 유아일 때 부모는 주로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주력하게 되나 학동기가 되면서부터는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은 자녀의 학업문제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김종덕, 2001).

자녀의 학력향상을 위해 행사하는 모든 행동을 부모학습관여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 및 성취도에 관심을 보이며 학습관여를 하고 있는데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정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녀의 초기 학업성취는 향후 학습에 대한 태도 및 유능감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직접적인 학습관여를 통해 학업성취를 향상 시키고자 한(서지혜, 2009)다.

부모학습관여는 자녀가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녀의 학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의 행동을 말한다. 부모가 자녀의 학습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자녀 스스로 학습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등의 책임을 지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대체로 스스로 학습계

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며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한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며 계속 노력한다.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알고 학습에 임하게 된다.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학생은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믿음과 판단을 갖게 되며, 이는 곧 학습자가 원하는 학업성취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연수, 2007). 이렇게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능력은 학업이라는 발달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고등학생에게는 필요한 능력이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환경적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인 부모의 학습관여 행동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자녀에게는 부모가 직접적으로 학습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적요인으로는 동기요인을 볼 수 있는데 동기는 개인의 행동수정이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행동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유발된 동기를 한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가는 과정이다(김용래, 1993)

청소년 시기의 다양한 내면적 동기 요소 중, 학업과 관련해서 자신을 ‘유능한’,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청소년 시기 발달에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조혜정, 2002)다. Bandura(1997)는 자기 효능감 이론에 입각한 학업 자기효능을 설명하면서, 학업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과제를 수행할 때 자신의 능력수준을 뛰어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선호하며, 끈기있게 과제를 지속하며,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며, 뛰어난 자기조절능력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학습상황에 관련된 수행 및 성취수준에 중요하게 직·간접적으로 예측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연수, 2007).

현정숙(1999)은 학습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또는 학습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학습 전체를 주도하고 관리하며 이루어지는 학습을 자기주도학습이라 했다. 자기주도학습은 그 어떤 형태의 학습보다도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태도나 책임성이 강조되는 학습형태로서 개인 학습자의 적극적인 태도나 책임성은 학교교육 이전에 가정교육에서 그 바탕이 이루어지게 된(김지자, 김인아, 안현미, 2000)다.

오랜 유교적 문화의 배경 아래 있는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으며 입시경쟁 속에서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성취에 대한 압력을 주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다(김의철, 박영신, 2008). 이처럼 부모는 자녀의 학습성취를 목적으로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조력 활동을 하기도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들은 그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부모학습관여 형태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권낙원(1997)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관련된 변인으로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가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기대보다 학업성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박준희(1994)는 지적능력의 성취에 미치는 가정의 학습환경을 복잡한 압력의 그물망으로 파악하여 인지 능력의 성취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선천적 능력의 차이에서 라기보다는 가정의 독특한 환경적인 압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심수경(2005) 역시 부모로부터 학업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받은 학생들이 비교적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관심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자기주도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환경요인인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 관계를 살펴본 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있었지만 부모학습관여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종합적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시경쟁과 대학진학 문제에 봉착해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는 부모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고등학생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학습상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부모학습관여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 능력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가설 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 능력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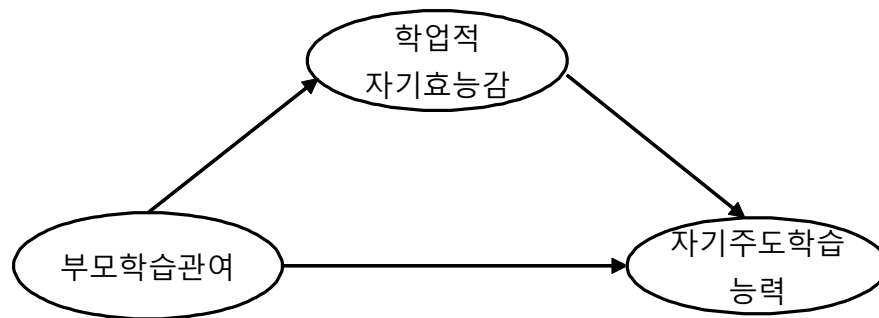
가설 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가설 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 연구모형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부모학습관여(Parental involvement in learning)

가. 부모학습관여의 개념 및 특성

부모학습관여는 부모의 양육활동 중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발달 과정은 유전자와 환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인간 발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가정환경이다. 가정환경 중에서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발달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최초의 중요한 교육자이다(진은영, 2001).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는 성장과 새로운 역할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모는 양육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보호자로서, 상담자로서 친구관계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홍규(1997)는 가정환경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부모의 지원은 아동의 전반적인 성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 주느냐에 따라 자녀의 행동, 태도, 성취감 및 학업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부모의 학습 자율성 증진행동과 학업정보제공, 부모의 기대수준, 부모의 성취압력이나 학업배려 또는 학습지도 유형 등이 학업성취 또는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어져 왔다(김영선, 1999; 임은미, 1998; 김애리, 1999).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정환경은 자녀의 학습동기나 학업성취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며 부모는 자녀의 성격발달을 비롯한 성장 발전의 모든 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학습관여는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바람직한 태도나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방법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면 자녀의 특별한 행동에 민감하게 되어 적절히 개입하고, 학습환경을 풍부하게 해 주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녀에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객관적인 위치로 옮겨놓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김숙자, 1989).

임은미(1998)는 부모가 자녀에게 학습과정에서의 호기심, 즐거움, 지구력 등을 격려하면 자녀의 자율적 학업동기가 높아지며, 자녀를 외적으로 통제하거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녀의 능력을 비하하거나 외적 보상을 언급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자율적 학업동기와 관련됨을 밝혔다. 또 Slaughter(1983)는 부모와 자녀의 학습에 대한 상호작용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언어자극, 정서적 반응, 언어적 반응, 아동 활동에 대한 부모의 관여 등 부모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자극은 아동의 지능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녀 학습에 부모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학업에 관여한다고 느끼게 되면 더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적절한 부모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습동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연숙(2000)은 자녀의 성장기에 부모가 어떤 양육태도를 갖는가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실제적인 양육태도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받아들일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자녀의 정의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은미(1998)는 Deci(1995)가 제시한 자율성을 증진하는 네 가지 개념에다 학업정보제공을 통합하여 ‘부모행동’이라는 용어로 정의 하였고 이를 김종덕(2001)은 자녀가 공부를 할 때 언제,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느냐에 관해서 가능한 자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학습 선택권 부여, 자녀 스스로 규칙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민주규칙 제공, 문제 해결적인 태도로 자녀의 학업행동을 검토해 주는 걱정 성과 추구, 자녀의 학습행동이나 성적을 형제, 자매, 친구 등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 고유의 맥락에서 검토하는 학업진보격려,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 등을 탐구하고 모았다가 자녀가 필요할 때 제공하는 학업정보 제공 등을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를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

성과압력으로 세계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 부모학습관여의 구성요인

부모의 학습관여에서 보여지는 행동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학업에 대한 호기심과 동기를 자극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여 학습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학습에 대한 정보제공과 조언, 자녀학습방식 존중, 학업성과 압력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이나 진학정보, 학습에 필요한 정보 등을 탐구하고 모았다가 자녀가 필요할 때 제공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이 제시한 정보를 사용하도록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자세로 정보를 안내하며, 그 정보를 사용할 것인지는 자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이런 태도는 자녀에게 나타나는 학업의 문제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점을 파악하여 학습방법에 대한 조언이나 학업정보를 제공하고 학습환경을 지원하여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습 분위기와 학습방법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적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자신감과 학업성취도가 높다.

자녀학습방식 존중으로 자녀가 공부를 할 때 언제,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는가에 관해서 가능한 자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며, 부모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가 선택한 바를 최대한 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행동의 정의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일방적이지 않고 학업 내용과 학습형태, 학습환경 등에서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자녀에게 적절한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지만 자녀 스스로가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함으로써 자녀가 학업의 주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부모의 관여는 자녀의 학업성취와 학습능력 향상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학업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최적의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견을 자녀와 함께 나누는 방식을 통하여 자녀 스스로 합

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촉진제 역할을 말한다.

학습성과 압력은 능력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성과만을 기대하거나 친구들과 경쟁하여 이길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학습성과에 대한 기대나 성취에 대한 압력을 행하는 것이다. 이는 자녀가 경쟁 상태에서 도태되지 않고 무조건 좋은 점수를 얻거나 무엇을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을 규정하고 높은 성과를 이루도록 과도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동이다. 이런 형태의 학습관여는 교육 이라는 명목아래 자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게 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2. 자기주도학습 능력(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개념 및 특성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은 타인의 조력 여부에 상관없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파악하여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하며, 자신의 학습속도에 맞추어 학습을 조절하고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평가하고 점검하는데 주도권을 갖는 학습방법이다(양명희, 2000). 현재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의 하나로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이란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혼동을 주기도 한다.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Zimmerman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주도학습의 개념과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른 이론적 기반과 다양한 관점 속에서 현상을 보기 때문에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어 명확하게 진술하기는 어렵지만 자기주도 학습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로는 자기 스스로 학습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을 기술하기 위해 자기계획 학습(self-planning learning), 독립학습(independent study), 자기교수(self-teaching), 독학(autodidaxy), 개별학습(individual learning), 탐구학습(inquiry learning), 자습(selfstudy), 자율학습 (autonomous learning), 자기교육 (selfeducation)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김지자, 1994; 위성미, 2000; 이채식, 1999)다.

김용수(1998)는 자기주도학습은 학생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이 학습속도를 정하여 자기의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이라고 하였고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대다수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참여와 계획, 자기평가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전략의 수행을 그 주된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의로 Knowles(1975)는 타인의 조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데 개인이 주도권을 갖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는 자기주도학습을 단순히 교사없이 행하는 학습이 아닌 자기주도학습의 과정 및 단계들을 체계적으로 밝혔다. 또 Tough(1979)는 자기교수를 학습자들이 어떤 특정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계획적이고도 개인적인 시도로 정의하면서, 학습자 혼자서 학습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점검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그 목록에 따라 교사의 도움 없이 학습하는 것을 자기주도학습이라 함으로써 자기주도학습을 비형식적인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독학의 개념으로 보았다. 즉, 자기교수(self-teaching), 학습과정에 대한 계획과 방향에 있어 학습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짐을 전제한다. 따라서 학습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는 자기조절의 과정이며, 학습활동의 결과보다는 학습활동의 과정에 중점을 둔다(양명희, 2005). 자기주도의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주제이기는 하나 그것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나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관심 속에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양명희·오종철, 2006).

Brookfield(1985)는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과정에 있는 학습자의 특징 학습 방식으로, 학습과정의 결과로서 기대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나 학습자 내부의 의식변화로 설명하고 있으며, Corno와 Mandinach(1983)는 자기주도학습은 초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학업성취를 촉진하여 학습에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즉, 자기주도학습을 학습의 주체자가 되려고 하는 학습자의 의도적인 노력으로 보았다.

Zimmerman & Schunk(1989)는 자기주도학습자란 자신의 학습과정에서 메타인지적으로, 동기적으로, 행동적으로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동기적으로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과제에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에 접근하며 스스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것을 의미하며, 행동적으로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고 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정숙, 2016). 또한 자기주도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 독특한 과정, 절차, 또는 반응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학습하는 동안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주며, 학습자가 자기주도 과정, 절차, 또는 반응을 어떻게 왜 선택하는지에 관한 기술을 포함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이정숙, 2016).

전 세계적으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Long & Walsh(1993)는 강력한 타인의 지도를 다소 받거나 혹은 전혀 받지 않거나 간에 학습자 스스로의 통제와 관리에 의하여 어떤 학습에 임하고, 집중하며, 의문을 제기하며 비교하고 대조하는 일련의 인지적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남필교, 2008).

나.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구성요인

자기주도학습 능력이란 자기주도학습을 해낼 수 있는 학습자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조작과 관찰이 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자기주도학습의 구성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박주연, 2008).

자기주도학습에서 상위인지요인을 강조한 Corno(1986)는 주의통제, 약호화통제, 정서통제, 동기통제, 환경통제를 구성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자기주도학습에서 동기요인을 강조한 Pintrih(1989)는 자기주도학습을 인지적 요인, 자원관리요인, 동기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인지적 요인에는 주어진 과제의 암송과 정교화, 조직화가 포함되고, 자원관리요인에는 할당된 시간의 관리, 주어진 상황의 환경적 조건관리, 과제수행을 위한 노력의 분배관리, 필요한 도움의 요청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동기요인으로는 내재 동기지향, 과제가치, 신념, 성공에 대한 기대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Pintrich와 De Groot (1990)도 자기주도학습의 동기 요인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자기주도학습의 주된 요소로 인지요인, 자원관리 요인, 동기요인을 꼽았다. 동기요인에는 내적 지향, 과제의 중요성, 신념, 성공에 대한 기대를 포함시키고 있다. Sink는 자기주도학습을 인지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인지적인 면은 특수영역의 지식과 전략, 일반적인 학습전략, 초인지적 통제가 포함되며, 정의적인 요인에는 자기효능감, 내재동기, 자아존중감, 완성 경향성으로 분류하고 있다(송인섭, 2006)다. 특히 Zimmerman(1986)은 자기주도학습의 구성요인에 인지적 측면과 동기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조절, 학습환경의 통제와 활용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Zimmerman의 이러한 견해는 국내의 많은 연구에 영향을 주고 있(송인섭, 2006; 양명희, 2000; 정미경, 2003)다. 정미경(2003)은 자기주도학습의 이론적 구인으로 동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을 들고, 초·중·고등학생용 자기주도학습 검사를 개발하였다.

양애경(2007)은 자기주도 학습의 4개 하요인으로, 주체성(초인지), 성취지향성, 내재적 동기, 과제 해결력을 제시하고 있다. 주체성(초인지)는 주어진 학습상황에서 학습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 조절하며 학습을 스스로 평가하는 정도이다. 성취지향성은 주어진 학습상황에서 호기심과 성취감으로 문제해결을 하고, 성공에 대한 확신과 성취에 대한 자부심, 독립성 및 신념의 정도를 말한다. 내재적 동이란 주어진 학습상황에서 탐구심, 흥미, 요구 등이 내재화되어 긍정적으로 노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신념과 의욕의 정도이다. 과제 해결력은 주어진 학습상황에서 목표를 정하고 학습의지를 갖고 극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과제해결을 잘 수행하려는 능력의 정도이다.

자기주도학습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도 학업성취를 높이는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구성요인을 호기심과 탐구심, 학습흥미, 학습내적통제 3개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단순(2006)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하위요인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측정하였다.

3.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

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개념 및 특성

최근 심리학의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변인들 중에 동기요인이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동기이론 중 하나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근거한 학업 자기효능감 이론이다. 다양한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인간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거나 예언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이론에 입각한 학업 자기효능감 이론은 학습상황에 관련된 수행 및 성취수준에 중요하게 직·간접적인 예측을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김효순, 2003).

자기효능감은 1960년대 이후 사회인지 이론과 함께 등장한 개념으로 애매모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이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데, Schunk(1981)는 주어진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자기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자기효능감으로 보고, 이를 구체화시켜서 모호하고 예견할 수 없으며 긴장을 주는 요소가 포함된 구체적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자기효능감이라 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특정한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성하기 위해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Bandura, 1986)이다. 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직접적 경험, 간접적 경험(모델의 성공을 관찰), 언어적 설득에 의해서 형성, 유지, 변화될 수 있다(Bandura, 1997). 따라서 학습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영역에서 성공경험을 제공하고, 간접적 성공경험, 언어적 설득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에 대한 판단이(신동윤, 2013) 되는 것이다.

Bouffard-Bouchard(1989)는 학습자의 지속적인 자기 감시가 요구되는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이해하는데 자기 효능감에 대한 지각이 유용하며, 지각된 자기 효

능감은 과제를 지속하고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최인선, 2012).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판단하느냐가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이론적 구성요인은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으로 구성된다. 그 요소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과제 난이도 선호는 어떤 학업적 수행 상황에서 개인이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 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Bandura(1993)에 따르면 목표와 관련된 과제 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적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된다(김아영, 박인영 2001).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Zimmerman, 1992; 신원, 2007)는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기술을 뛰어넘는 위협적인 상황을 무서워하고 피하려 들며, 그들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만을 선택하고 행동한다(Bandura, 2009; 김아영, 박인영 2001). 그러기에 과제 난이도 수준에서 어려운 목표를 선호하여 도전하게 되면 높은 수행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이 긍정적인 정서 반응으로 나타나 순환하는 과정을 갖게 된다.

자기조절 효능감(self-regulatory efficacy)이란 개인이 자기 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 기대라고 정의내릴 수 있(Bandura, 1986)는데 반두라는 사회인지 이론의 기본 전제인 인간의 행동은 자기조절 체계(self-regulatory system)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이 행동을 할 때 자기조절을 얼마나 잘할 수 있다고 믿느냐를 중요한 하나의 구성요인 이라고 보았다. 즉 학습자가 지각하는 자신에 대한 신념은 학습자의 학습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이 얼마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에 따라서 학습행동의 수준이 결정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조절 효능감(self-regulatory efficacy)이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는 학업 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필요한 자기조절 전략 혹은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에 대한 확신 정도를 의미한다(김아영, 2008).

Zimmerman(1989)는 자기조절 학습과정에 포함되는 내용을 초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요소를 들고 있는데 자기조절 기술에 대한 강한 신념은 필요한 인내력을 제공한다. 학생이 동기와 학습 활동을 조절하는 효능감 신념이 높을수록 학업교과목을 완수하기 위한 자기효능감을 확실하게 갖는데, 지각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학업적 열망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적 성취를 촉진한다(Bandura, 2009) 그러기에 자기 스스로 학업에 흥미를 느끼며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조절 효능감을 높여 자기학습 관리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신감이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으로서의 자신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볼 수 있다.

Bandura(1986)는 자신감을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는 상황-특수적인 개념으로 정의 하였지만, 이를 전반적인 학업적 상황에 적용시켜보면 자신의 전반적인 학업적 상황에 적용시켜 보면 자신의 전반적인 학문적 수행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확신 또는 신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자기가치에 대한 평가 결과 얻어지는 자존감과 구별되는 자신감(self-confidence)을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하였다(김아영, 2008).

4. 부모학습관여, 자기주도학습,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가. 부모학습관여와 자기주도학습 능력과의 관계

김종덕(2001)은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에게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자녀의 자기조절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학습 자원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Bandura(1986)의 자기조절학습은 연령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달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적 상호작용에 의해 수동적으로 획득되는 것도 아닌 개인, 환경, 행동의 삼원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요컨대 학생의 밀접한 환경 변인인 부모는 학생의 학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이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의 핵심은 학습의 자기 주도성(self-directedness)과 학습자의 자기관리(self-directedness)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박영태와 현정숙(1997)은 아버지의 애정적, 아동중심적인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민주적,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정적 상관을 가진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지자외,(2000)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 지향적, 애정적, 자율적인 것으로 아동이 지각 할수록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다고 보고하여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정현숙(2002)은 가정의 가정 환경으로서의 부모행동과 자녀의 학업성취 사이에는 높은 상관이 있음을 밝혔고, 김홍규(1997)도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의미있는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지원에 따라 자녀의 행동, 태도 성취감 및 학업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권낙원(1997)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관련된 변인으로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가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기대보다 학업성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고 있으며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의 결과로서 학업성취는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및 기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기주도학습과의 직접적 관계를 밝혔다. 이처럼 학생의

밀접한 환경 변인인 부모는 학생의 학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이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심수경(2005) 역시 부모로부터 학업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받은 학생들이 비교적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관심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연수(2007)는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학습관여형태와 자기주도학습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학습관여형태와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모의 학습관여형태를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나.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가정환경은 자기효능감 형성에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의 문화생활 공유 등 같은 활동을 통한 정서적, 정보적 지원은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신종호, 신태섭, 2006).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정환경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형성이나 학습 동기 및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기에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영신은(1997)은 가정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부모의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의 자율성에 따라 청소년의 주의사람의 기대와 학업성취에 대한 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양난미, 이은경(2008)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포부에 대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학습관여 형태 변인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부모학습관여 변인의 예측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이는 지각된 부모의 학습관여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높아졌음을 보고

하고 있다. 또 정규태(2009)는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학업 스트레스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연구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남을 보고했다.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애정적으로 대처하면 청소년 자녀는 부모의 학습에 대한 관여를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여 긍정적인 학습동기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정옥신, 2008; 최민숙, 2011)고, 이수현(2010)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학업 스트레스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율적 일수록 고등학생이 지각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졌음을 보고 하였다.

김연수(2008)도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할 때 자녀 스스로 학습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자녀의 학업 자기효능감을 신장시켜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됨도 말하고 있다.

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 능력과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 두 변인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다른 변인들과 상호관련을 맺으며 학습자의 수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줌으로 학습자의 학업적 수행능력을 예언해 주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임지현, 2004; 김원, 2014).

Bouffard-Bouchard(1990)은 자기 효능감에 대한 지각이 학습자의 수행수준, 특히 지속적인 자기감시가 요구되는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즉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수행과정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여 학습 능력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자기주도학습과 관련이 있다. 또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학습의 과정 및 실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학업적 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 되었다. 또 김원(2014)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 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개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통제되었을 경우 모-돌봄 양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창현(2013)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 정서 및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긍정적 학업정서는 증가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낮게 지각할수록 부정적 학업정서가 증가 하며, 적절한 과제난이도와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적도 함께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처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상황에 관련된 다른 동기적 인지적 변수들과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학업성취 수준에 직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 학습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내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고등학교 남, 여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학교의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설문 내용과 실시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설문은 2018년 3월부터 4월 초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설문시간은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총 6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600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33부를 제외하고, 총56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남학생 106명(28.4%), 여학생 406명(71.6%)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43.2%가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378명(66.7%), 2학년 189명(33.3%)으로 1학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학하기 원하는 상급학교는 일반대학교 553명(97.5%), 전문대 14명(2.5%)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567)

		N(=567)	구성비율(%)
성별	남자	161	28.4
	여자	406	71.6
학년	1학년	378	66.7
	2학년	189	33.3
진학희망대학	일반대학교	553	97.5
	전문대	14	2.5

2. 측정도구

가.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

부모의 학습관여 검사는 임은미 (1998)가 5요인 50문항으로 제작한 부모행동검사를 김종덕(2001)이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학습선택권부여, 민주적규칙제공, 학업과정 문제해결적태도검토, 학업진보격려, 학업정보제공의 5요인 30문항으로 삭제 통합하였다. 이를 김연수(2007)가 추축 분해법(principal axis method), 다중상관자승치(SMC: squared multiplecorrelation), Varimax법을 통해 10문제를 제외하여 어머니의 학습관여형태 척도로 개발하였는데 하위요인은 학습정보제공조언, 학습성과 압력, 자녀학습방법 존중의 3개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김연수(2007)의 어머니의 학습관여형태 척도를 부모님의 학습관여척도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재구성한 것으로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자녀학습방식존중, 학습성과 압력의 3개요인 20문항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세부적으로는 부와 모가 각각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이 .919, .911, 학습방식존중이 .766, .733, 학습성과 압력이 .879, .878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부가 .779, 모가 .751로 나타났다.

<표 2> 부모학습관여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분석 (N=567)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부	모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9	3, 6, 8, 10, 12, 14, 17, 18 20	.919	.911
학습방식 존중	4	1, 4, 13, 19	.766	.733
학습성과 압력	7	2, 5, 7, 9, 11, 15, 16	.879	.878
전체	20		.779	.751

* 모두 역채점 문항

나. 자기주도학습 능력 척도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요인구조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척도(이단순, 2006)의 52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27문항을 제외하고 3요인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요인 1에는 ‘의문에 관하여 답을 찾는 것이 즐겁다’, ‘어떤 것을 알고 싶다면 꼭 밝혀 낸다’, ‘결과를 모르더라도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즐겁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요인 1을 ‘호기심과 탐구심’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에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다’,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다’, ‘공부하면 할수록 그 부분이 재미가 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인 2를 ‘학습흥미’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에는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R)’, ‘공부의 성과는 모두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인 3을 ‘학습내적통제’요인이라 명명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호기심/탐구심이 .910, 학습흥미가 .835, 학습내적통제가 .603이며, 전체적으로는 .916으로 나타났다.

<표 3> 자기주도학습 능력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567)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호기심과탐구 심	13	2, 3, 4, 5, 11, 12, 13, 14, 16, 17, 18, 19, 20	.910
학습흥미	7	1, 8, 15,* 21, 22, 24*, 25	.835
학습내적통제	5	6, 7, 9*, 10*, 23	.603
전체	25		.916

*는 역채점 문항

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개인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Likert식 6점평점 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형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유미영(2010)이 5점 척도로 변환해 측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상에서 평정하게 하는 5점 Likert 반응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개의 하위요인 첫 번째는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정도를 말하는 ‘과제 난이도 선호’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두 번째로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능기대를 의미하는 ‘자기조절 효능감’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말하는 ‘자신감’은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 총2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유미영(2010)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전체 .930으로 보고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은 과제난이도 .893, 자기조절효능감 .861, 자신감 .822으로 전체.894로 나타났다.

<표 4> 학업적 자기효능감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567)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과제난이도 선호	10	1, 4, 7*, 10, 13, 16*, 19*, 22, 25, 28*	.893
자기조절효능감	10	2, 3, 6, 9, 12, 15, 18, 21, 24, 27	.861
자신감	8	5*, 8*, 11*, 14*, 17*, 20*, 23*, 26*	.822
	28		.894

*는 역채점 문항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4.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점수 범위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산출 하였다.

둘째, 부모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신뢰도는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의 차이는 t-test 실시하였으며, Levene 등분산 검정에서 등분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분산 검정인 Welch 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학습관여,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 능력간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부모학습관여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Hayes의 Process Macro 3.0을 이용해 Bootstrapping방법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학습관여, 자기주도학습 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주요 변인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점수를 살펴보면, 부모학습관여의 전체 평균은 2.94점,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전체 평균은 3.47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3.07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학습관여의 하위변인 중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학습성과 압력에서 부(M=3.89, SD=.85), 모(M=3.78, SD=.87)이며, 가장 낮은 변인은 학습정보 및 제공에서 부(M=2.95, SD=.88), 모(M=3.20, SD=.86)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하위변인 중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호기심과 탐구심(M=3.47, SD=.60)이고, 가장 낮은 변인은 학습흥미(M=3.12, SD=.46)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자기조절효능감(M=3.43, SD=.60)이며, 가장 낮은 변인은 자신감(M=2.64, SD=.8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 능력 점수가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변수의 정규성은 왜도와 첨도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의 정규 분포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으로,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야 한다(Kline, 1998). 부모학습관여,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왜도의 절대값은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은 모두 7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최소값	최대값	M	SD	왜도	첨도
학습관여	부 전체	1.00	4.00	2.94	0.44	-0.58	1.04
	부-학습제공및조언	1.00	5.00	2.95	0.88	-0.09	-0.18
	부-학습방식존중	1.00	5.00	3.78	0.85	-0.57	-0.04
	부-학습성과압력	1.00	5.00	3.89	0.85	-0.62	-0.11
	모 전체	1.33	4.48	3.06	0.42	-0.29	0.75
	모-학습제공및조언	1.00	5.00	3.20	0.86	-0.16	-0.21
	모-학습방식존중	1.00	5.00	3.76	0.78	-0.54	0.25
	모-학습성과압력	1.00	5.00	3.78	0.87	-0.52	-0.48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1.53	4.60	3.07	0.39	0.13	1.62
	과제난이도선호	1.00	5.00	3.04	0.75	-0.05	0.05
	자기조절효능감	1.50	5.00	3.43	0.60	0.34	-0.01
	자신감	1.00	5.00	2.64	0.80	0.17	-0.30
자기주도적학습 능력	전체	1.72	5.00	3.47	0.43	0.20	0.76
	호기심/탐구심	1.23	5.00	3.66	0.60	0.12	0.11
	학습흥미	1.71	5.00	3.12	0.46	0.18	0.70
	학습내적통제	1.60	5.00	3.28	0.46	0.20	1.46

2. 부모학습관여, 자기주도학습 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학습관여의 하위변인(학습제공및조언, 학습방식존중, 학습성과압력), 자기주도학습 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아버지의 학습 관여와 어머니의 학습 관여도는 .739($p < .001$)로 높은 양의 상관성이 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r = .267, p < .001$), 자기주도학습 능력($r = .240, p < .001$)과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습 관여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r = .247, p < .001$), 자기주도학습 능력($r = .261, p < .001$)과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 학습능력($r = .473, p < .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x1	x1.1	x1.2	x1.3	x2	x2.1	x2.2	x2.3	m	m1	m2	m3	y	y1	y2	y3	VIF			
부모 학습 관여	x1.부-학습관여	1.000																			
	x1.1.부-학습제공및조언	.766**	1.000																2.840		
	x1.2.부-학습방식존중	.486***	.238***	1.000																3.229	
	x1.3.부-학습성과압력	-.283***	.078	.483***	1.000															3.443	
	x2.모-학습관여	.739***	.564***	.381***	-.192***	1.000															
	x2.1.모-학습제공및조언	.573***	.781***	.249***	.161***	.749***	1.000														2.904
	x2.2.모-학습방식존중	.363***	.179***	.755***	.368***	.466***	.272***	1.000													3.337
x2.3.모-학습성과압력	-.177***	.117***	.372***	.765***	-.284***	.150***	.493***	1.000												3.323	
학업적 자기 효능감	m.학업적 자기효능감	.267***	.162***	.076	-.173***	.247***	.159**	.118**	-.093*	1.000											
	m1.과제난이도선호	.207***	.188***	.166***	.037	.202***	.200***	.178***	.066	.710***	1.000										1.312
	m2.자기조절효능감	.330***	.331***	.267***	.092*	.308***	.339***	.304***	.163***	.599***	.473***	1.000									1.520
	m3.자신감	-.047	-.186***	-.245***	-.360***	-.054	-.205***	-.220***	-.322***	.365**	-.242***	-.309***	1.000								1.290
자기 주도 학습	y.자기주도학습능력	.240***	.181***	.217***	.026	.261***	.202***	.257***	.053	.473***	.435***	.572***	.136**	1.000							
	y1.호기심/탐구심	.246***	.229***	.251***	.102*	.262***	.251***	.293***	.132**	.479***	.555***	.622***	.278***	.861***	1.000						
	y2.학습흥미	.269***	.207***	.121***	-.085*	.273***	.213***	.167***	-.034	.432***	.317***	.492***	.027	.618***	.522***	1.000					
	y3.학습내적통제	.125**	.036	.075	-.085*	.142**	.047	.095*	-.074	.255***	.082	.250***	-.113**	.738***	.292***	.468***	1.000				

p* < .05, p** < .01, p*** < .001

3.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다중공선성은 VIF 지수를 이용하며 VIF 지수는 1.290~3.443으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i>B</i>	<i>SE</i>	β	<i>t</i>	<i>p</i>
부-학습관여	.011	.054	.012	.208	.835
모-학습관여	.155	.057	.153	2.735	.006
학업적 자기효능감	.458	.042	.427	10.819	<.001
		<i>adjR</i> ² =.244		<i>F</i> =28.890	<i>p</i> <.001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학습 관여($p=.006<.05$)와 자기효능감 ($p<.001$)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습 관여가 높을수록($\beta=.153$),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beta=.427$)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전체 설명력은 24.4%이다.

가.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1) 호기심과 탐구심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서 호기심과 탐구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호기심과 탐구심에 미치는 영향

	<i>B</i>	<i>SE</i>	β	<i>t</i>	<i>p</i>
부-학습제공및조언	-.006	.036	-.008	-.158	.875
부-학습방식존중	-.012	.040	-.016	-.290	.772
부-학습성과압력	.019	.041	.027	.459	.646
모-학습제공및조언	.017	.037	.025	.454	.650
모-학습방식존중	.096	.044	.126	2.191	.029
모-학습성과압력	-.036	.039	-.053	-.920	.358
과제 난이도 선호	.252	.029	.316	8.637	<.001
자기조절효능감	.420	.039	.422	10.809	<.001
자신감	-.034	.027	-.046	-1.278	.202
<i>adjR</i> ² =.465			<i>F</i> =40.306 <i>p</i> <.001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서 호기심과 탐구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학습 방식 존중($p=.029<.05$)와 자기효능감에서 과제 난이도 선호($p<.001$), 자기조절 효능감($p<.001$)은 호기심/탐구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습 방식과 존중이 높을수록($\beta=.126$), 과제 난이도 선호가 높을수록($\beta=.316$)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을수록($\beta=.422$) 호기심과 탐구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 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전체 설명력은 46.5%이다.

2) 학습 흥미에 미치는 영향

부모학습관여와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서 학습 흥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학습 흥미에 미치는 영향

	<i>B</i>	<i>SE</i>	β	<i>t</i>	<i>p</i>
부-학습제공및조언	.007	.032	.013	.207	.836
부-학습방식존중	-.004	.035	-.007	-.107	.915
부-학습성과압력	-.024	.036	-.044	-.646	.518
모-학습제공및조언	.026	.033	.049	.779	.436
모-학습방식존중	.051	.039	.087	1.305	.192
모-학습성과압력	-.052	.035	-.100	-1.484	.138
과제 난이도 선호	.072	.026	.118	2.764	.006
자기조절효능감	.327	.035	.430	9.467	<.001
자신감	.072	.024	.127	3.037	.003
<i>adjR</i> ² =.274			<i>F</i> =18.088	<i>p</i> <.001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서 학습 흥미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에서 과제 난이도 선호 ($p=.006<.05$), 자기조절 효능감($p<.001$)과 자신감($p=.003<.05$)은 학습 흥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난이도 선호가 높을수록($\beta=.118$)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을수록($\beta=.430$), 자신감이 높을수록($\beta=.127$) 학습 흥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 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전체 설명력은 27.4%이다.

3) 학습내적통제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서 학습 내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학습 내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i>B</i>	<i>SE</i>	β	<i>t</i>	<i>p</i>
부-학습제공및조언	-.022	.036	-.043	-.618	.537
부-학습방식존중	.013	.039	.024	.330	.741
부-학습성과압력	-.002	.040	-.004	-.049	.961
모-학습제공및조언	.002	.037	.003	.048	.962
모-학습방식존중	.053	.043	.091	1.219	.223
모-학습성과압력	-.061	.039	-.117	-1.570	.117
과제 난이도 선호	-.015	.029	-.025	-.532	.595
자기조절효능감	.234	.038	.309	6.117	<.001
자신감	.106	.026	.186	3.991	<.001

*adjR*²=.101 *F*=6.075 *p*<.001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서 학습 내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에서 자기조절 효능감($p<.001$)과 자신감($p<.001$)은 학습 내적 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을수록($\beta=.309$), 자신감이 높을수록($\beta=.186$) 학습 내적 통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 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전체 설명력은 10.1%이다.

4. 부모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Hayes의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한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11>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i>B</i>	<i>SE</i>	<i>t</i>	<i>p</i>	95% CI	<i>B</i>	<i>SE</i>	<i>t</i>	<i>p</i>	95% CI
부-학습관여	.167	.054	3.073	.002	.060~ .273	.011	.054	.208	.835	-.094~ .117
모-학습관여	.094	.058	1.633	.103	-.019~ .207	.155	.057	2.735	.006	.044~ .267
학업적자기효능감						.458	.042	10.819	.000	.375~ .542
매개효과										
부→자기주도학습						.076	.027			.025~ .131
모→자기주도학습						.043	.028			-.009~ .102
<i>R</i> ²				.097					.244	
<i>F</i> (<i>p</i>)				11.555(<.001)					28.890(<.001)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아버지의 학습 관여가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B=.076, p<.05)며, 아버지의 학습 관여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져서 자기주도 학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학습 관여가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습 관여는 자기주도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B=.458, p<.001)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 부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12> 부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독립	매개	호기심/탐구심		학습 흥미		학습 내적 통제	
		B	95% CI	B	95% CI	B	95% CI
부-학습제공및조언 → 과제난이도선호 → Y		.012	-.019 ~ .043	.003	-.006 ~ .015	-.001	-.007 ~ .004
부-학습제공및조언 → 자기조절효능감 → Y		.047	.007 ~ .089	.036	.006 ~ .069	.026	.004 ~ .054
부-학습제공및조언 → 자신감 → Y		.002	-.003 ~ .010	-.004	-.015 ~ .006	-.006	-.022 ~ .006
부-학습방식존중 → 과제난이도선호 → Y		.021	-.014 ~ .056	.006	-.004 ~ .020	-.001	-.009 ~ .005
부-학습방식존중 → 자기조절효능감 → Y		.025	-.013 ~ .066	.020	-.009 ~ .052	.014	-.007 ~ .037
부-학습방식존중 → 자신감 → Y		.001	-.003 ~ .008	-.003	-.013 ~ .006	-.004	-.018 ~ .008
부-학습성과압력 → 과제난이도선호 → Y		-.015	-.047 ~ .016	-.004	-.016 ~ .005	.001	-.004 ~ .007
부-학습성과압력 → 자기조절효능감 → Y		-.029	-.071 ~ .012	-.022	-.057 ~ .010	-.016	-.042 ~ .006
부-학습성과압력 → 자신감 → Y		.009	-.006 ~ .026	-.019	-.038 ~ -.004	-.028	-.054 ~ -.009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였으며, 아버지의 학습관여가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효과 검정 결과는 <표 12>와 같다.

아버지의 학습제공 및 조언이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 효능감은 호기심/탐구심(B=.047, p<.05), 학습 흥미(B=.036, p<.05), 학습 내적 통제(B=.026, p<.05)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습 제공 및 조언이 높아질수록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아져서 호기심과 탐구심, 학습 흥미, 학습 내적 통제가 높아진다. 또 아버지의 학습성과압력은 자신감을 매개하여 학습 흥미(B=-.019, p<.05), 학습 내적 통제(B=-.028, p<.05)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학습 성과 압력이 높아질수록 자신감이 낮아져서 학습 내적 통제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 모 학습관여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13> 모 학습관여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독립	매개	호기심/탐구심		학습 흥미		학습 내적 통제	
		B	95% CI	B	95% CI	B	95% CI
모-학습제공및조언	→ 과제난이도선호	→ Y	.020-.011 ~ .054	.006-.003 ~ .018		-.001-.009 ~ .004	
모-학습제공및조언	→ 자기조절효능감	→ Y	.046 .003 ~ .094	.036 .003 ~ .072		.026 .002 ~ .055	
모-학습제공및조언	→ 자신감	→ Y	.002-.003 ~ .011	-.005-.015 ~ .005		-.007-.021 ~ .007	
모-학습방식존중	→ 과제난이도선호	→ Y	.017-.021 ~ .061	.005-.006 ~ .020		-.001-.009 ~ .005	
모-학습방식존중	→ 자기조절효능감	→ Y	.048 .004 ~ .095	.038 .004 ~ .072		.027 .003 ~ .054	
모-학습방식존중	→ 자신감	→ Y	.001-.006 ~ .008	-.001-.014 ~ .009		-.002-.019 ~ .012	
모-학습성과압력	→ 과제난이도선호	→ Y	.007-.025 ~ .039	.002-.008 ~ .012		.000-.006 ~ .004	
모-학습성과압력	→ 자기조절효능감	→ Y	.024-.015 ~ .067	.019-.012 ~ .052		.014-.008 ~ .039	
모-학습성과압력	→ 자신감	→ Y	.002-.003 ~ .011	-.004-.016 ~ .006		-.006-.021 ~ .008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였으며,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효과 검정 결과는 <표 13>과 같다.

어머니의 학습 제공 및 조언이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 효능감은 호기심/탐구심(B=.046, p<.05), 학습 흥미(B=.036, p<.05), 학습 내적 통제(B=.026, p<.05)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습 제공 및 조언이 높아질 수록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아져서 호기심과 탐구심, 학습 흥미, 학습 내적 통제가 높아진다.

어머니의 학습 방식 존중이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 효능감은 호기심/탐구심(B=.048, p<.05), 학습 흥미(B=.038, p<.05), 학습 내적 통제(B=.027, p<.05)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습 방식

존중이 높아질수록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아져서 호기심과 탐구심, 학습흥미, 학습내적통제가 높아진다.

어머니의 학습성과압력은 자신감을 매개하여 학습내적통제($B=-.021$, $p<.05$)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학습성과압력이 높아질수록 자신감이 낮아져서 학습내적통제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효율적인 학습관여태도를 제시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우며,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개발과 학습상담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결과를 선행 연구와 관련지어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능력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에서 가정한 모든 변인들 간에 상관이 나타났다. 부모의 학업정보제공 및 조언과 학습방식 존중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학습성과 압력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학업정보제공 및 조언과 학습방식존중의 학습관여가 고등학생에게 지각 될수록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아짐을 말하며, 학습성과 압력이 높게 지각될수록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여태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 주도 학습능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김선옥(2012)의 연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이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이정숙(2016)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때 자녀는 스스로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학습효과도 커진다(Flavell, 1976)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학습성과 압력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부적 상관으로 나타난 것은 부모의 학업 기대에 대한 압박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박순희, 1996; 박강학, 2004; 이재구, 2000; 황혜연, 2006; Pintrich & De Groot, 1990; Wigfield & Guthrie, 1997)를 뒷

받침 하고 있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학습관여형태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부정적인 학습관여형태는 부적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김연수(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부모가 고등학생 자녀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자율적인 학업활동을 격려하는 것이 고등학생의 학업적 효능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학습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학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면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윤희, 2006; 박순희, 1996; 윤인숙, 2005; 이동훈, 2010; 이미옥, 2003; 이재구, 2000; Flavell, 1976; 김종운, 최미숙, 2011)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면 어머니의 학습 방식 존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과제 난이도선호, 자기조절 효능감은 호기심과 탐구심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은 학습 흥미에 유의한 영향 주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은 학습 내적 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모의 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의 자율성격려 행동이 자녀의 학습전략과 상관이 있으며, 부모학습관여가 긍정적일수록 자녀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많이 사용하고(김홍석, 심혜숙, 2009; 김민수, 2006; 이동훈, 2010),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초인지적 활동이 활발하고 인지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Ames & Archer, 1988). 또한 윤인숙(2005)이 검증한 부모가 학습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민주규칙제공, 적정성과 추구, 학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녀는 학습자로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정보처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형태로 정보를 변환시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능력이 향상된

다는 연구결과 와도 일치함으로써 자녀의 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심의 정도가 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부모가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 등을 탐구하고 모았다가 자녀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제공할 때 자녀가 학습활동 자체를 목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동기가 높은 학습자일수록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자녀의 학습에 있어서 학습동기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김원석, 2007;이선희, 2005; 전경옥, 2005)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기존연구의 결과(진은영, 2001; 박정근, 2002)와도 일치하며, 학습자가 학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신념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 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갖추고 학습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등학생이 부모의 학습에 대한 관심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부모의 적절한 관심이 요구되며 또한 학습 이외의 자녀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교감을 나누어 자녀가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다는 심리 안정감을 가지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와 자기주도 학습능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학습관여의 하위요인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의 학습관여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매개하여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하위요인인 학습제공 및 조언이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 효능감을 매개로 호기심과 탐구심, 학습흥미, 학습내적 통제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학습관여의 하위요인인 학습 성과 압력은 자신감을 매개하여 학습 내적 통제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학습관여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하위요인인 학습제공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에서 자기조절효능감을 매개로 호기심과 탐구심, 학습흥미, 학습내적 통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성과 압력은 부모모 모두에게서 자신감을 매개로 학습흥미와 학습내적 통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습 방식 존중이 높아질수록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아져서 호기심과 탐구심, 학습 흥미, 학습 내적 통제가 높아짐을 의미하며, 부모의 학습성과 압력이 높아질수록 자신감이 낮아져서 학습 내적 통제가 낮아지는 것으로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김진아(2006)의 부모의 학업관여가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매개하여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김연수(2008)의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할 때 자녀 스스로 학습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신장시켜 궁극으로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와도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관여로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선택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기조절을 통하여 끈기를 가지고 자신의 학업적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학업적 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조절 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기대 및 조절에 대하여 지각하는 신념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작은 성공경험의 누적을 통한 자기조절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 태도인 학업정보제공 및 조언과 학습방식 존중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정적 태도인 학습성과 압력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부모학습관여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에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는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부모학습관여와 자기주도학습 능력 사이에서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고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증진을 위해 가정과 학습장면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돕는 부모교육, 상담전략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도내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학생 1~2학년 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모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고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학습정보제공이나 자녀의 학습방식을 존중하는 긍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의 학습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부모는 자녀의 학습에 직접적인 개입 보다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키워 학습에 대한 동기를 심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부모가 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에 관여할 때는 자녀들이 평소에 학습에서 성공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학습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하며, 자녀를 학습자라로만 판단하여 결과 중심적인 피드백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것보다는 학습조력자로서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때 학습에 대한 자신감, 학업에 대한 효능감을 키워 이로 인하여 자녀 스스로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 따라서 고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신장시켜 자녀 스스로 학습과정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학습관여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가정환경에서 부모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모상담 프로그램과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기주도학습 능력

이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후속연구에서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하여 발달에 따른 부모학습관여에 대한 지각도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요인으로 연구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심리, 사회적인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같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부모가 모두 양육을 하는 일반가정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 또는 친척에 의해 양육되어지는 고등학생이 많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일반가정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양육 형태의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면 폭 넓은 시사점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선모, 심혜숙 (2010). 초등학생의 탄력성과 부모학습관여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11(4), 1827-1840.
- 강태용 (2002). **학습기술훈련이 고등학생의 학습습관,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본용, 유제민 (2010). 부모의 긍정적 관여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1), 171-187
- 권낙원 (1977). **학생이 지각한 부모 및 교사의 성취기대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근 (2008). 부모의 교육적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정배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 사회학연구**, 18(1), 39-66.
- 김동일, 신을진, 이명경, 김형수 공저 (2011). **학습상담** 서울: 학지사
- 김만권, 이기학 (2003). 자기조절전략 프로그램이 학업성취와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91-504.
- 김미란 (2005). **초등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 및 학습지원 가정환경과 학업성취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수 (2006). **자기결정성 및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과 학습전략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래 (1993). **학업성적에 대한 기여요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희 (2006). **고등학생의 학습동기 및 학습전략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옥(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태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 변인. **교육심리연구**, 11(2), 1-19.
- 김아영 (1998). 동기이론의 교육현장 적용 연구와 과제 : 자기효능감 이론을 중심

- 으로. **교육심리연구**, 12(1), 105-128.
- 김아영외 (2001). 학업성취도에 대한 지능과 동기변인들의 상대적 예측력. **교육심리 연구**, 12(4), 121-138.
-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 변인. **교육심리연구**, 11(2), 1-19.
- 김아영 (1998). 동기이론의 교육현장 적용 연구와 과제 : 자기효능감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2(1), 105-128.
- 김애리 (1999).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배려가 자녀의 시험 불안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수 (2008).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업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관계;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진 (1998). 효율적인 학습 상담법. 서울: 양서원
- 김원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 태도와 자기주도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덕 (2001). 부모의 학습관여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현 (2004). 학습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자 (1994). 남녀 지도사들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에 관한 비교연구 **여성사회교육**, 1, 78-93.
- 김지자, 김경성, 안현미 (1999).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주도 하급력과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177-209 서울대학교 대학원 초등교육 연구소
- 김진아 (2006).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학습전략의 관계구조.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순 (201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업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영, 정영선 (2009). 학습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효순 (2003). 사고양식,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효정 (2014). 초등 영재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의 정서 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규 (1997). 신생활지도론. 대구: 형설출판사.
- 남필교 (2008). 부모의 학습관여, 학업자아존중감과 자기주도적학습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호은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 효능감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 (1997). 제7차 교육과정 총론. 교육인적 자원부 고시 제 1997-25호
- 박강학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습관여 형태가 중학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동혁 (2009). 학습전략향상 프로그램. 서울: 한국가이던스
- 박성윤 (2000). 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와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도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양육태도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태, 현정숙 (1997).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분석. 동아대학교 동아교육논총 23, 95~118.
- 박외자 (2009).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학습관여태도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한숙 (1999).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기술 훈련 가능성 탐색. 열린 교육연구,7(2)
- 박형근 (2009). 동기요인과 자기주도학습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영주 (2003). **성인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종찬 (2011). **자기주도학습,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용수, 김경근 (2006).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제1회 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논문집**, 3, 387-403.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봉미미 (2006). 중학생의 부모, 교사, 학급풍토 및 교우관계에 대한 인식을 이용한 험스트레스, 학습동기, 자기조절학습전략 사용 및 학업성취도 예측. **한국교육종단연구학술대회 논문자료집**, 137-157
- 서승아 (2004). **자아개념, 학습동기, 학업성취목표에 대한 학습전략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혜 (2003). **부모교육**. 서울: 문음사.
- 송인섭 (2006). **자기주도학습** 서울: 학지사.
- 신구슬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행동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동윤 (2013).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와 심리적 안녕감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수경 (2005).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학업적 자효능감과 시험불안의 매개효과**.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명희, 오종철 (2006).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과의 관련성 검토. **심리연구**, 20(1), 745-764.
- 양명희 (2002).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미영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 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인숙 (2005).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학습동기 및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관**

- 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란 (2016). 부모의 학습관여가 고등학교 영재교육 대상자와 일반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단순 (2006). 초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변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영 (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훈 (2010) 부모학습관여와 자녀의 성취 목표가 학습유형 및 자기조절 학습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자, 송영명 (2005). 자기조절학습전략,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업적 동기와 자기평가의 차이. *중등교육연구*, 53(1), 85-104
- 이세현 (1994). 동기적 요인 및 자기조절학습 요인과 학업성취의 상관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영 (2012).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학습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 최해림 (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자아탄력성, 불안 및, 학교적응의관계.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9(2), 321-339
- 이순정 (2016). 자율형고등학교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자기결정성, 학습참여, 자기주도학습간의 관계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 (2009).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재규, 김종운, 김현진의 공저(2014). *학습상담* 서울: 학지사
- 이재현 (1994). 부모의 기대와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2016).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 (2009).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메타인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습몰입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창현 (201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정서 및 학업성취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현 (1994). **부모의 기대와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 (1991). **고교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학업성취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 (1998). **학업동기 및 부모행동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규태 (2009).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형태와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상선 (2014).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결정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철희 (2009). **자기주도학습 만점공부법**. 서울: 행복한 나무
- 정현숙 (2002).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학업동기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은영 (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정상경험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은숙 (2011). **부모의 학습관여태도와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관의 관계**.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순미 (2004). **평생학습사회에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전략**. 서울: 양서원
- 황매향, 임은미 (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18(3).
- 황현금 (2002). **자기조절학습전략이 자아효능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연 (2006). **교사효능감 및 부모자녀관계 변인과 고등학생의 학습동기, 학습전,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순미 (2004). **학습동기 변인들과 인지전략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 329-350.

- 현정숙 (1999).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주도주도 학습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수업 모형 개발.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란 (2001).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란 (2003).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습의욕 및 학업 성취도간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선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mes, C & Archer, J. (1988). Achievement goals in the classroom: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 process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3). 260-267.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1988).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Paper presented at the 2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Sydney. Australia.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 Cervon(1983). Self-evaluative and self-ef Mechanisms governing the motivational effects of good Systems. *Journal of Per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017-1028.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ough proxima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98.
- Bouffard-Bouchard, T. (1989).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performance in a cognitive task.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0, 353-363
- Duvall, E. M. (199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New York: Harper Row.
- Flavell, J. H. (1976). Metacognitive Aspects of Problem Solving, Resnick, L. (ed), *Nature of Intelligence*, Erlbaum, Hillsdale:LEA.

- Knowles, M.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ew York: Association Press.
- Long, H. B. (1987). Item analysis of Guglielmino'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6(4), 331-336.
- Murray, H. A. (1962). *Exploration in personality: A clinical & experimental study of fifty men of college 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 S. Knowles, *Self - directed Learning :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 (Chicago, I, L.: Follett Publishing Co. 1975)
- Phintrich, P. R., & De 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33-40.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 Wigfield, A. & Guthrie, J. T. (1997). Relations of children's motivation for reading to the amount and breadth of their read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420-432
- Schunk, D. H (1989). *Self-efficacy and cognitive skill learning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Volume 3: cognitions*, NJ: Academic Press.
- Schunk, D. H (1991). Self-efficacy and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26(3 & 4), 207-231.
- Tough, A. M (1979). *The adult's learning project: A fresh approach to theory and practice in adult learning*.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 Duvall, E. M. (199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New-York: Harper & Row Publisher.
- Zimmerman, B. J. (1989). A social cognitive view of self-regulated academic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329-339.

Zimmerman, Bandura, Martinez, Pons(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 663-676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Baek Eun Jung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ung 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by parents. For this purpose, I conducted questionnaires on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Jeju Island. A total of 63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600 copies were collected. A total of 567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ept for 33 copies that were nonresponsive or unfaithfully.

To measure parental involvement in learning, Kim Yeon-Soo (2007) reorganized her mother's style of engagement in learning. And to measur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ie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easures were used as reconstructed by Lee Dan-Soon (2006). In order to measure the

academic self-efficacy, Kim A-young and Park In-young (2001) used the "Korean Style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for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tools converted by Yoo Mi-young (2010) was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4.0 Statistical Program.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verall data, and correlation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nt. In addition, in order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by parents, the bootstrapping method using Hayes's Process Macro 3.0 was analyzed.

Based on these analy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ach variant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all the variation assumed in the study. Respect for parental academic information provision, advice, and learning style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nd pressure on learning outcome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Second, the effect of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howed that mothers' learning involve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e higher mothers' learning involvement, the higher the academic self-efficacy, the higher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the academic self-efficacy had the biggest influence.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parent-learning involvemen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self-efficiency has been shown to inform the effect of father's influence on self-directed learning. The higher fathers' learning involvement, the higher the self-efficacy and therefor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hows an increasing. However, the influence on a mother's learning involvement to self-directed learning has been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But, sub-factor analysis has shown that self-controlled efficiency and confidence, which are subcomponents of academic self-efficacy, are used to influenc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ies.

Combining the results of the study, a sense of academic self-efficacy is an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an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is could be the basis for developing counseling strategies and programs to improv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by presenting an effective academic view of parents and enhancing academic self-efficacy.

**Key words : Parental involvement in learning, Academic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설 문 지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설문조사는 부모학습관여와 자기주도학습의 관계에서 학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각 질문에 대해,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숫자상으로 통계 처리되고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므로 익명으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 응답요령(검사시간: 약 10분 내외)

1. 평소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문항에 해당하는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각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정환

연구자: 백은정

E-mail: yiyeodo@naver.com

본인은 위의 내용을 잘 이해하였으며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무기명 사인: _____

본인의 성별은?	① 남학생 () ② 여학생()
본인의 학년은?	① 1학년 () ② 2학년 ()
진학하기 원하는 대학교는?	① 일반대학교(4년제) ② 전문대(2년제)

★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학습관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보와 모를 구분하여 답(√)에 주세요.

번 호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자세와 방법으로 공부하도록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나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공부 방법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가 전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시간과 장소에서 공부하도록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성적이 잘못 나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가지도 않고 화부터 내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나의 공부목표와 성과를 나와 함께 검토 하 시며 더 알맞은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과 경쟁하여 이길 것을 강조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나의 공부나 진학에 관한 정보를 모았다가 전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은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은 성적이 잘못 나오거나 공부를 따라 하기 어려 워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은 공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누구보다 더 잘 해 라'라고 말씀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은 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은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부모님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은 내 능력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높은 성과만을 기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님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실망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7	부모님은 시험성적이 잘못 나오면 공부하면서 내가 무 엇을 어려워 하는지를 알고 도와주려고 애쓰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8	부모님은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고 말씀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지 않아도 꾸중하지 않고 공부하기 싫은 내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0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함께 찾아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의 생각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곳에 답(√)에 주세요.

번 호	내가 생각하기에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나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밌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쉬운 과목보다 어려운 과목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깊이 생각해야하는 문제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추어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풀지 못한 과제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1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킬까봐 불안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수업시간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 더 재밌다.	①	②	③	④	⑤
14	토론을 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내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 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만약 여러 과목 중에서 몇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과목만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수업시간에 발표를 할 때면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학교 공부는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①	②	③	④	⑤
20	선생님이 모두에게 질문을 할 때 답을 알아도 크게 대답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22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23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쉬운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26	시험 때만 되면 우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끝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가능하다면 어려운 과목은 피해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분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의 생각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곳에 답(√)해 주세요.

번호	내가 생각하기에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항상 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무언가 의문이 생겼을 때 꼭 그것을 알아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무언가 의문이 있다면 그 의문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5	어려운 것이라도 내가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을 공부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신이 알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모두 나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공부하는 시간을 더 갖고 싶으므로 하루의 시간이 24시간보다 더 길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책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읽기 싫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어떤 것을 알고 싶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의문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답을 찾아내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알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스스로 알아냈을 때 기쁘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 또래의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어떤 것을 알고 싶다면 꼭 밝혀낸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새로운 방법을 잘 찾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새로운 것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공부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공부하면 할수록 더 그 부분이 재미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22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지 부모나 선생님이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학교나 집에서는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문항이라도 제외될 경우 자료를 사용할 수 없으니
혹시 빠진 문항은 없는지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개인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연락처 또는 E-mail을 알려주시면 설문해석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_____ E-mail: _____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